# 양촌 문충공 권근權近선생 표준영정

## 문화관광체육부에 동상영정제작심의 신청키로
## 서세 600주년을 기한 기념사업의 일환

▲ 양촌 권근선생의 영정초본 전관

▲ 영정 초본 앞에서 권오창 화백이 후손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며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추밀공파 시조후 16세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대학자이자 문호文豪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사표師表로서 일찍이 사범대동師範大東의 칭을 받은 문충공文忠公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 증좌의정贈左議政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양촌陽村 권근權近(1352~1409) 선생이 금년 2009년에 서세逝世 600주년을 맞게 되었다. 양촌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권오용權五容)와 안동권씨종보사에서는 2년여 전부터 이를 기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양촌선생의 국가공인 표준영정標準影幀을 제작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09년 2월 20일 현재 61인의 개인과 문중이 참여해 1천6백여만원의 모금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영정을 그릴 담임화가로는 국가표준영정만 8인을 그려 심의확정케 한 바 있고 조선 태조상을 비롯한 전통인물화를 수없이 그려오면서 관련 저술서도 낸 바 있는 사계의 명장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 화백이 맡기로 선정이 되어 그동안 고증과 시안작업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인물의 표준영정이 제작되면 각급 교과서와 사전류에서부터 제반 서적출판물에 활용·등재되고 화폐와 우표 등의 도안으로 적용되며 또한 조폐공사에서 제조 보급하는 기념메달로도 활용이 되어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광범할 뿐만 아니라 동상銅像과 같은 기념조형물을 제작할 때에도 이 표준영정이 그 필수의 원형으로 비롯된다. 현재 세종대왕·퇴계·율곡·이순신 장군상이 모두 표준영정이고 논개는 기존에 명가가 그려 모신 것이 표준영정으로 국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현재 진주시와 장수군에서 수억원을 들여 공모 제작을 하고 있고, 우리 권문의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의 동상이 행주산성에 서 있고 영정이 행주산성의 충장사와 기공사紀功祠, 금산군 진산의 충장사에 봉안되어 있지만 국가표준영정이 아니어서 사전 서적류에 단 한 점도 등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누가 말을 해 주어도 언듯 이해를 못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표준영정 제도가 생긴 것은 1973년 무렵부터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충무공 이순신을 성웅화하고 그 유적을 성역화하면서 보니 아산의 현충사에 있는 화상과 통영에 있는 화상이 달라 각기 다른 인물과 같았다. 연유를 물으니 각기 그린 화가에 따라 달리 형상화되어 그렇다는 것이고, 이에 충무공같은 역사적 인물의 단일화된 표준영정을 국가에서 제정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이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새로 제작하는 일로부터 국가표준영정 제도가 비롯되었다.

처음에 역사적 인물 가운데 100인을 목표로 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 표준영정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거기에는 이순신·세종대왕처럼 새로 그리는 것과 기존의 영정이 있는 것을 고증하고 심사하여 표준영정을 삼는 것으로 나누어 사업을 착수한 결과 수십인의 표준영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되자 각 선대 인물의 후손 문중에서 앞을 다투어 나서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져 그 비용은 각자의 후손 문중이나 추모사업 단체에서 조달케 하고 정부에서는 고증·심사와 제정만을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3년 전부터는 그것도 너도나도 자기 조상을 표준영정으로 제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선별하기 위해 그 신청자의 자격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익법인체 및 사회단체로 제한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후손 문중이나 임의단체에서 제작하는 영정은 비표준으로 각자가 사사로이 봉안할 수 밖에 없게 되니 충장공 권율 장군의 영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안동권씨인 선현으로는 단 1점의 표준영정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의 국가표준영정은 총 80인이 제작되었다. 그 80호가 세종대의 청백리로서 좌의정을 지낸 고불古佛 맹사성孟思成이고 이를 그린 화가가 바로 권오창 화백이다. 고불의 신창맹씨新昌孟氏 행단이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데 아산시에서 그 시청앞에 맹사성의 동상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자 먼저 그 표준영정을 문광부의 동상영정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권오창 화백이 그 담임화가로 선정이 되고 수년의 작업 끝에 심의를 필해서 현재 아산시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상을 또한 조각가에게 의뢰해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경복궁까지의 세종로를 완전히 개조해 재구성 단장하면서 기존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하나만 설치돼 있는 것을 세종대왕과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이순신 장군 3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물론 삼봉의 동상을 설치미술가가 제작키 위해 그 영정이 필요한데 삼봉도 우리 양촌선생처럼 전수되어온 영정이 없었다. 그 국가표준영정을 이미 제작해 심의 확정이 되었는데 그 영정에 대한 담임화가로서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화가가 권오창 화백이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그 작곡자 안익태 선생에게 저작권이 있듯이 국가표준영정에도 각자의 제작화가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 궁중인물화 기법을 전수하여 평생 인물화 상만을 그려온 권오창 화백은 고불 맹사성까지 8인의 국가표준영정을 그려 이 분야의 기록보유자가 되고 있다. 그 다음 기록인은 6인의 표준영정을 그린 화가이다. 근자 충주시에서도 탄금대 공원에 악성 우륵于勒과 충장공 신립申砬 장군 등 3인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 영정을 또한 국가표준으로 권오창 화백이 그렸다.

2월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권오창 화백의 동강궁중회화연구소에 이번 영정제작의 심의신청서에 공식 고증자로 선정된 후손 권오흥權五興 성균관 석전연구원 교수와 필자 및 문중 원로 수인이 모여 영정의 초본을 게건한 가운데 화가 권오창 화백의 종합설명을 청취하며 의견진술과 평가토론을 하였다. 그렇게 종합된 의견과 결론은 물론 앞으로의 본안 제작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날 권오창 화백이 브리핑한 내용의 개요는 이러하였다.

규격은 가로 86㎝, 세로 120㎝이며 제작 기간은 2009년 12월말까지를 목표로 한다. 기본구상개념은 고려말 조선초기 대학자이자 문학·사상·경세가인 양촌 권근선생의 기품과 40권의 문집 및 입학도설入學圖說·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등을 저술한 문인상文人像을, 58세 별세 전의 55세 무렵 만년을 상정하여 우안상반신상右顔上半身像으로 하여 그린다. 제작고증에 있어서 용모는, 양촌선생이 궁술弓術에 탁월했을 만큼 무예에도 능했던 것으로 전하나 스스로 소오자小烏子라 겸칭했던 바라 괴위魁偉하지 않은 문인학자풍으로서 조용하고 사색적인 모습으로 그리되 후손간의 전설과 의견 등을 종합하여 형상화한다. 복식은 조선 초기의 관복과 사모의 양식과 형태를 취하고 의정부 찬성사 신분의 관대 등을 착용한다.

초본을 이렇게 그린 상태로 지자체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신청자가 되어 문화관광체육부에 그 표준영정 제작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문광부의 담당부서는 국어민족문학과이다. 문광부는 이 신청을 분기별로 접수처리하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몇 분기의 것을 모아 심사위원회의를 열기도 하고 하여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도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심사위원회는 사계의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 9인으로 위촉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문광부 담당국과장이 참여하여 십이삼인의 회의가 되며 심사회의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는다.

초본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원본을 그려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표준영정으로 확정이 되면 문광부에서는 이를 관보에 게재해 공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상은 문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국내외의 모든 수요자가 학술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영리나 상업적 목적으로 쓸 때에는 저작권자인 화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이번 영정제작심의신청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양촌권근선생 행적'은 그 요약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 양촌陽村 권근權近선생 행적

● 고려 공민왕 1년, 1352년 11월 6일 개경의 추동楸洞에서 정간공靖簡公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 권희權僖와 문절공文節公 한종유韓宗愈의 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창순택주彰順宅主 한양한씨漢陽韓氏 사이 5남중 4남으로 출생.

● 공민왕 17년, 1368년·17세 : 8월에 성균시成均試에 입격.

● 1369년·18세 : 3월 관시館試 제2명 입격, 5월 예위禮 제3명 입격, 6월 전시殿試 병과丙科 제2명으로 급제, 7월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에 제수.

● 1370년·19세 : 중국 제과制科의 향시鄕試에 제3명 입격하나 25세 미만으로 명나라 서울의 회시會試에 응시 못함. 1월 예문관수찬修撰 제수, 공봉供奉을 거쳐 12월 수직랑修職郎